

에볼라 치료소 무장괴한 습격...환자 집단 도주

라이베리아 빈민가서 17명 탈출...에볼라 확산 우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의 빈민가에 있는 에볼라 치료소가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는 틈을 타 환자 17명이 집단 탈출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17일(현지시간) 목격자들을 인용해 곧봉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전날 밤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치료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에볼라라는 없다”고 외치며 집기 등을 약탈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소에 격리돼 있던 환자 17명이 탈출했으며 간호사 등 의료진도 습격을 피해 달아났다.

라이베리아 당국에 따르면 이 치료소에는 애초 에볼라 환자 29명이 수용돼 있었으나 이 중 9명은 나흘 전 사망했고 3명은 가족의 뜻에 따라 전날 퇴원했다.

당국은 환자의 체액으로 오염된 담요 등 치료소 내 물건들이 괴한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돼 에볼라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료소가 위치한 웨스트포인트는 몬로비아 최대 빈민가로 6만~10만 명의 빈곤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이처럼 빈민가 등 외곽 지역에 에볼라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해 유럽이 세계에서도 고립됐듯이 라이베리아의 격리 지역도 ‘흑사병 마을’처럼 외부와 차단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실제 격리 지역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에볼라를 확산시킬 위험을 안고 마을을 탈출하거나 감염과 죽음의 공포에 떨며 그대로 머무르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에볼라 환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몬로비아 부근에 최대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소를 추가로 열었다고 뉴욕타임스

가 보도했다.

한편 스페인 보건 당국은 스페인에서 에볼라 감염이 의심돼 격리 조치됐던 나이지리아인이 에볼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함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나이지리아에서 인도로 가던 중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사망한 나이지리아 여성은 사망 전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UAE 국영 뉴스통신 왈(WAM)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3일 통계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에볼라로 인해 114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중 라이베리아에서 413명이 숨졌다. 기나에선 380명, 시에라리온은 348명, 나이지리아 4명이 각각 에볼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태국 대리모 출산 미스터리

日 사업가 시게타씨 15명 출산...동기·불법 여부 수사 “아기 1000명 원하는 등 정신 분열” 의료진이 신고 당국, 아기 밀매 등 구체적 증거 없어 형사 기소 안해

태국에서 일본 남성이 생부로 추정되는 대리모 출산 아기가 늘어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1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인 사업가 시게타 미츠도키(24)씨가 생부로 추정되는 대리모 출산 아기는 최소한 1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9명은 유전자 검사 결과 시게타씨가 생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6명은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서류에서 그가 생부인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이 아기들의 생부가 시게타씨인 것으로 보고, 이 대리출산들의 동기와, 불법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게타씨는 이미 태국 밖으로 출국한 상황이라서 경찰은 그를 상대로 대리출산 동기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시게타씨에게 대리모를 알선했던 한 의료기관은 그가 일본에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를 지원할 대가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료기관 관계자는 시게타씨가 100~1000명의 아기를 갖고 싶어했으며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이를 일본대사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BBC 방송, CNN 방송 등에 신고한 적이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은 이번 사건이 아기 밀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를 형사 기소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시게타씨가 생부인 것으로 드러난 아기 9명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태국인 이름으로 임대됐으며, 이 아파트에는 아기 21명이 거주자로 등재돼 있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일본에는 시게타 미츠도키라는 이름의 남성이 여러 명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재계 순위 20위 내 재벌의 아들, 대기업 주주, 캄보디아 내 5개 무역업체를 거느린 기업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앞서 시게타씨는 자신의 희망으로 대리출산 아기로 추정되는 4명을 직접 캄보디아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게타씨의 고문은 이 아기들이 현재 캄보디아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태국 경찰이 이 아기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는 시게타씨가 18~20일 중 태국으로 돌아와 경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경찰은 아직 그의 출두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예산 3년 연속 증액

센카쿠 열도 등 낙도 감시 강화

일본의 방위예산이 3년 연속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18일 새로운 장비 조달,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방위 예산 요구안은 금년도 방위비인 4조 8800억 엔을 넘어 5조 엔(약 50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방위성 간부의 전망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 전년도보다 0.8% 올라간 4조 7538억 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는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 8천848억 엔으로 책정하는 등 2년 연속으로 방위예산을 늘렸다.

방위성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 다오<釣魚島>)열도를 비롯한 낙도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작심히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5대와 수륙양용차, 차기 전투기 F-35 5대의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라고 NHK는 소개했다.

또 낙도 등에 대한 경계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3대와 국산 신형 조계기 P1 4대를 구입하는 비용과 이즈스할 건조비를 계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방위성은 작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10개년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서 낙도에 대한 탈환 능력 정비를 강조했다. 이는 센카쿠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됐다. /연합뉴스

원형탈모 치료약 발견 美 연구팀, 효과 확인

젊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데 원형탈모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이 발견됐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미국 칼럼비아 대학 메디컬센터의 라파엘 클라인스 박사는 골수암의 일종인 골수섬유증(myelofibrosis) 치료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룩솔리티니브(ruxolitinib)가 원형탈모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약을 원형탈모 환자 3명에 하루 두 차례씩 복용하게 한 결과 머리가 다시 자라면서 4~5개월 만에 탈모가 완치됐다고 클라인스 박사는 밝혔다.

그는 원형탈모가 면역세포인 T세포가 모낭을 공격해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여러 약을 모델위에 실험한 결과 모두 빠진 털이 자라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 이 중 룩솔리티니브를 골라 원형탈모 환자에게 실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룩솔리티니브의 효과는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원형탈모 환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클라인스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남성탈모는 이 약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17일(이하 현지시간) 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장갑차까지 동원한 경찰이 연막탄 등을 쏘며 시위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퍼거슨 주민-경찰 또 충돌...주방위군 동원령

10대 흑인 총격 사망 소요사태

10대 흑인의 총격사망 사건 이후 소요사태가 지속되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주민들이 야간 통행금지가 발령된지 이틀째인 17일(이하 현지시간) 밤에도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에 미주리 주정부는 치안 회복을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기로 했다.

400여명 규모로 대부분 젊은 흑인인 시위대는 통금이 발효되는 18일 자정을 몇 시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 교외지역인 퍼거슨에서 또다시 거리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려고 연막탄과 최루탄 등을 발사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야수장으로 변했다. 일부 청년들은 경찰을 성토하는 피켓을 치켜든 채 구호를 외쳤고 다른 일부는 진압차량을 내세운 경찰을 향해 최루탄 가스통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평화적인 행진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연막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당국은 시위대가 현장 지휘소로 접근하고 있었던 만큼 공공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미주리주는 퍼거슨에서 소요사태가 지속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17일 오후 0~5시에 이어 18일에도 같은 시간대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 150여명은 17일 새벽 0시 이후에도 시위를 계속했고 경찰은 끝까지 해산 명령을 거부한 7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백인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이 최소 6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족들이 뉴욕시 수석 검사관을 지낸 마이클 베이든에게 요청해 별도의 부검을 실시한 결과 브라운이 머리에 2발, 오른 팔에 4발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예약 : 061)536-1000

www.oceanocc.co.kr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시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주중/주말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1팀(전원) 40%
공통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인장료	주중	60,000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2**